

*Beyond Division to Peace and Cooperation*

# DMZ Forum 2020

## DMZ wants Peace

2020. 9. 17(Thu.) ~ 18(Fri.) | [www.dmzforum.or.kr](http://www.dmzforum.or.kr)

기획세션 2-2



Hosted by  Global Inspiration  
GyeongGi-Do

Organized by  경기연구원  
GRI Gyeonggi Research Institute

KINTEX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KOREA  
PEACE  
APPEAL

Sponsored by  Ministry of Unification

## [기획세션 2-2 : DMZ 거버넌스 구축]

기획세션 2-2 는 dmz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좌장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는 미무라 미츠히로 일본동북아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박영민 대진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참여했다.

미무라 미츠히로 일본동북아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dmz가 남북경협 중심지가 된 적은 없었음을 지적하며 접경지대에 많은 교류와 관광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이천시, 해주시, 연안군, 파주시, 개성시 등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북한기업이 남한에 와서 사업을 하거나 강령국제록색시범구,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등 경제개발구역을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실현가능성, 계속성, 수익성이 적다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가 필요하고 거버넌스 베이스 경제협력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박영민 대진대학교 교수는 dmz의 의미, 거버넌스 구축의 과정과 과제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 세계에 16개의 dmz가 존재하는데 그 중 한반도의 dmz는 전쟁의 산물이자 평화의 상징, 생태자원 축적, 기억의 유산이라는 3가지 특성을 충실히 간직하기에 가장 가치있고 이를 보호 및 촉진하고 강화시켜야한다고 표했다.

거버넌스의 과정에는 1 민주성의 원칙 개입되어야 하고 2 현실성의 문제를 고려해야하고 3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제로는 현재 관리권만 가지고 있기에 주권을 회복해야하고 융합법제를 제정하여 평화지역설치 및 육성을 하는 등 이 소외된 지역을 능동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남북 협력의 사례가 있기에 결단을 보여준다면 굉장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참여자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끌어내고 통일부 중심 사업추진, 법률 재정비, 유엔사령부와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정부가 군사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자체와 기업이 경제협력, 경제특구개발에 힘쓰고 ngo단체가 생태환경과 관리를 해야한다고 피력했다.